



"폭우 오기 전 미리미리"...농어촌공사 경기본부, 재난·재해 대응태세 확립

승인 : 2025-05-22 08:41:01

본부·10개 지사, 침수피해 예방 위한 무인자율배수장 가동 훈련 실시



경기지역본부가 지난 21일 본부 및 10개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화상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한 무인자율제어 배수장 가동훈련을 진행했다./경기지역본부

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인자율제어 배수장 가동훈련을 실시했다.

22일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본부 및 10개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된 훈련은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재난재해 상황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,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배수장의 무인 자율제어 시스템을 비롯해 자동화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.

가동훈련은 본부 관내 38개 무인자율배수펌프장과 저수지 전도수문, 방수문 등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된 치수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, 각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설물의 수위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펌프 가동 여부, 방수문 등의 원격조작 시 정상 가동 여부 등 자동화시스템 및 무인 자율제어 시스템을 점검했다.

김종성 경기지역본부장은 "무인자율시스템을 비롯해 자동화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,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농경지 등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"고 밝혔다.

김주홍 기자 ju0047@naver.com

© 아시아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